

# 여야, 정치 일정 전면 중단... 사고 수습·규명 매진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마치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하고 있다.

### 국민의힘, 행사·축제 자제 지시... 레고랜드 사태 고위당정협의회 취소 민주, 사고대책기구 구성 초당적 협력 결의...정의당, 원내대표 회동 제한

여야는 '이태원 헬러윈 참사'와 관련, 30일 정치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긴급대책회의를 갖는 등 총력 사태 수습 모드로 긴급히 전환했다. 하지만, 역대 최악의 사태라는 점에서 사고 원인과 책임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비상대책위 회의를 연 이후 기자들에게 "우선 전 당협, 지구당에 불요불급한 행사와 축제의 자제를 지시하고 언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예방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예방조치들은 취해졌는지 아닌지, 정밀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분석과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기 사무총장은 각 사·도당 등에 보낸 공문에서 불필요한 공개 활동·사적 모임·음주·SNS 글 게시 등 자제, 공식 행사에서 검은 리본 패용, 정치 구호성 현수막 즉시 철거 등 국가예도기간 중 행동 수칙을 제시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예정된 '레고랜드 사태' 관련 고위당정협의회를 취소했다. 강원연구원 주최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오는 31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레고랜드 사태 관련 토론회도 열리지 않는다. 내달 1일 잠정 예정됐

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첫 회의를 미뤘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정쟁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금희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사고와 관련되는 것, 과담 이라던지 이런 것으로 정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차기 당권 주자들을 비롯한 당내 주요 인사들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애도를 표하며 신속한 사태 수습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당내 대책기구를 구성해 피해 수습과 대책을 마련하고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긴급 비대위 직후, 입장 발표를 통해 "민주당은 다른 어떤 것들을 제쳐두고 정부의 사고 수습과 치유를 위한 노력에 초당적으로 적극 협력하겠다"며 "지금은 사고 원인 규명, 재발방지대책도 중요하지만 피해 가족·피해자분의 치유와 위로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고 수습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소집해 행정안전부 등을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예정된 전국위원장 선거 일정을 전면 중단·연기하는 등 사태 수습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은 전국위원장 선거 후보자 합동연설회가

예정돼 있었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가을철이라 당내 지역별 축제성 행사들이 많았는데 다 취소하기로 했다"며 "곳곳의 정치 구호성 현수막들도 다 철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의당은 이날 '이태원 참사' 관련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시민 안전참사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참사 원인과 수습 방안 마련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제안했다. 이정미 대표는 "대형 참사 앞에서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을 잘 위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안전 미비점의 원인을 제대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7기 지도부 출범 이후 예정돼 있던 현충원 참배, 신임 대표단 취임식을 모두 취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태원 암사 참사'와 관련, 전원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모든 일정과 국정운영의 순위를 사고 수습에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분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대통령실의 일원으로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무거운 마음을 느낀다"라고 언급했다.

/서울·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알립니다

## 한국 문단의 주인공 당신입니다

2023 광주일보 신춘문예  
12월 8일(목)까지 접수

신춘문예 작품을 공모합니다. 광주일보 신춘문예에는 광주일보 창간 이듬해인 1953년 시작된 이후 전통과 권위의 등용문이 되었으며 배출된 작가들은 한국 문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치열한 문학정신이 살아 있는 작가 지망생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광주일보사가 한국문단의 새 주역이 될 참신하고 역량 있는 신인작가 발굴을 위해 광주일보

- 부문 및 상금
  -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80매 안팎(당선작 1편, 상금 300만원)
  - 시 : 3-5편(당선작 1편, 상금 100만원)
  - 동화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당선작 1편, 상금 100만 원)
- 접수 마감 : 2022년 12월 8일(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61482, 광주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편집국 문화부. 문의 062-220-0624
- 기타 유의 사항
  - 팩스나 이메일, 손글씨 원고는 받지 않으며 A4에 출력한 원고를 보내야 합니다.
  - 접수 시 맨 앞장과 뒷장에 이름·전화번호·주소·이메일주소를 첨부해주시고.
  - 응모 작품은 발표된 적 없는 창작품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중복 입선된 원고나 기성 작가 표절일 경우 당선이 취소됩니다.
  - 결봉투에 공모 부문을 꼭 명기해 주십시오.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선작은 2023년 1월 1일자 광주일보 지면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光州日報社

## 美 바이든 “깊은 위로...한국과 함께할 것”

### 각 국 정상들 애도·위로 성명

서울 이태원에서 헬러윈 참사가 발생한 데 대해 각국 정상부터 해외의 주요 언론, 일반인까지 충격 속에 깊은 슬픔과 관심을 표시하며, 애도와 지원 의사 등을 전하고 있다.

◇각국 정상 “한국인과 함께하겠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0일 성명을 내고 “질과 나는 서울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보낸다”면서 “우리는 한국인들과 함께 슬퍼하고 부상자들이 조속히 쾌유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트위터를 통해 조의를 표시했다.

최근 취임한 리시 수낀 영국 총리는 트위터에서 “우리의 생각은 이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마주한 모든 한국인과 현재(참사에) 대응하는 이들과 함께한다”고 밝혔다.

올라프 솔트 독일 총리도 “서울에서 있었던 비극적 사건으로 우리 모두 충격에 빠졌다. 수많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애도를 전한다”고 말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태원에서 일어난 비극

에 한국 국민과 서울 주민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보낸다”면서 “프랑스는 여러분 곁에 있겠다”고 썼다.

기사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일본 외무성을 통해 “일본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희생되신 분들과 유족에게 마음으로부터 애도의 뜻을 표한다. 이렇게 곤란할 때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연대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홍콩과 대만 정부도 애도를 표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페이스북에서 “희생자들에게 깊은 슬픔을 표하고 유가족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한 모든 이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대만 외교부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태원 사고 사상자에 대한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각국 정상들도 트위터 등을 통해 애도와 연대의 마음을 이어가고 있다.

◇해외 언론, 홈페이지에 속보면 운영·해외 동포들도 애타는 심정=미국 CNN·뉴욕타임스·워싱턴 포스트, 영국 BBC·가디언 등 해외 주요 언론은 이번 참사를 라이브(live)면을 홈페이지 상단에 띄우고 관련 기사를 수시 업데이트하고 있다.

/연합뉴스

www.해남미남축제.com

광주해남, 한민도의 시작

해남군

2022

해남미남축제

2022. 11. 4. (목) ~ 11. 6. (일)

해남군 두륜산 도립공원 일원

맛남의 기대, 맛남의 기쁨

오감만족

미식여행

#맛있는 축제 #건강한 먹거리 #맛나게 즐겨봐